

# 2024 미얀마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국제적 고립과 대외 갈등의 지속	5
나. 민정 이양의 지연	7

##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2. 시장 분석	26
가. 시장 특성	26
나. 교역	27
다. 투자	29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2
가. 교역	32
나. 투자 진출	34
다. 협력 유망 분야	36

## III 진출전략

---

1. PEST 분석	38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9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0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1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3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3

Chapter



---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 1 개요

### 가. 시장 전망

#### ▣ 대내외 악재 속 느린 회복 전망

-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 '24년 경제성장률 2~3% 수준으로 정체 예상  
\* EIU 2.1%, 국제통화기금(IMF) 3.4% 등. '21년 역성장(-17.9%) 대비 더딘 회복 예상
- 양곤(Yangon)·만달레이(Mandalay) 등 도시지역 치안이 안정되며 생산과 소비가 회복됐으며, 물류 시스템 정상화, 국경 게이트 재개방으로 대외교역도 호전
- 단,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 현지 정부의 외환 통제 및 통상 규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경제 불안 요소로 작용 중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52.645	52.832	53.019	53.019	54.690	55.768	56.249	-
명목GDP	십억 달러	61.3	66.7	68.8	81.3	65.1	56.8	63.9	67.3
1인당 명목GDP	달러	1,166	1,271	1,302	1,527	1,216.8	1,053.3	1,180.5	1,235.6
실질GDP 성장률	%	6.3	6.4	6.7	3.1	-17.9	1.9	2.6	2.6
실업률	%	4	4	4	4	4	4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6	5.9	8.6	5.7	3.6	16.1	14.1	7.8
재정수지(GDP대비)	%	-6.793	-4.707	-2.827	-3.384	-0.184	-1.376	-1.003	-1.189
총수출	백만 달러	14,883.2	8,861.0	17,060.4	17,681.1	15,363.3	8,308.4	16,620.2	-
(對韓 수출)	"	573.2	534.1	631.5	608.9	367.9	384.3	-	-
총수입	"	18,694.9	9,866.5	18,086.6	19,050.9	14,686.1	7,964.9	17,352.7	-
(對韓 수입)	"	463.3	536.5	595.1	465.8	445.7	315.6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3,811.7	-1,005.5	-1,026.2	-1,369.8	677.2	343.4	732.5	-
경상수지	"	-3,958	-3,592	-2,959	-2,959	-3,666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360/1	1,430/1	1,522/1	1,407/1	1850/1	2,100/1	2,100/1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	-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7	17	41	48	37	6.4	16.4	-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미얀마 통계청, 상무부, 이민주민부, 중앙은행, 투자위원회(MIC)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및 주변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정세 불안이 지속
- 민정 이양의 지연과 임시 통치 체제의 장기화로 경기 회복 전망도 부정적

가. 국제적 고립과 대외 갈등의 지속

▣ 서방권 주요국은 쿠데타 이후 군 관련 인사, 기업 및 정부 조직 대상 경제 재재를 부과

- (美 재무부) 쿠데타 직후 군 총사령관 등 군부 관련 인물 95명과 군부 관련 34개 기업 및 단체 대상 경제 제재 부과,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제한 조치
  - 이후 현지 정부 대외 결제 창구인 대외교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등 국책은행 2개소 추가 제재('23.6.21)
  - \* 대외교역은행, 투자상업은행은 공식 영문 표기명에 'Myanmar' 대신 'Myanma'를 사용 중)

〈美 재무부 제재 대상〉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산업청, 국방조달청 및 제33, 77, 99 경보병사단(유혈 진압 직접 관여)</li> <li>• 미얀마 대외교역은행(MFTB), 투자상업은행(MICB) 등 국책은행 2개소</li> </ul>
기업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경제지주공사(MEHL), 미얀마 경제공사(MEC) 등 공기업 및 단체 15개소</li> <li>• 친군부 인사 및 군 장성 소유 민간기업 13개 사</li> </ul>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 포함 군부 관련 인물 95명</li> </ul>

- (美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상 미얀마의 국가 그룹을 하향 조정하고 쿠데타 관련 정부기관·군 소유 기업을 '우려 거래자'로 등재('21.3.4)
  - \* Group B → Group D1(강등), 對美 수출 시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가 강화됨
  - \*\*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 경제지주공사(MEHL), 미얀마 경제공사(MEC) 등 4개 기관
- (美 무역대표부) 지난 '13년 체결된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적용을 민주 정부가 복권될 때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21.3.29)

- (USAID) 인도적 지원 외 총 4,200만 달러 규모의 對정부 원조를 철회
- (EU) 공적개발원조 전면 중지('21.2.4), 자산 동결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21.3.22)
  - 이후 군 관련 국영·민간기업 4곳과 인사 27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함('22.2.21)
  - 최근에는 인권 탄압 관련 일반특혜관세(EBA) 철회 여부가 이슈화되고 있음
- (英) 재무성이 군부 관련 기관 9곳과 인사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 \* 親군부 기업 Htoo Group(건설, 항공, 무역, 호텔, 요식업 등 진출)과 회장 Tay Za를 제재 대상에 올림
- (日) 對미얀마 신규 공적개발원조(ODA)의 보류를 결정('21.3.31)

## ▣ 아세안(ASEAN)과의 정치적 이견으로 주변국과의 긴장이 지속

-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3.9.5)는 결의문을 통해 미얀마 정부의 조속한 '5개조 합의(5PC, Five-Point Consensus)' 이행을 촉구
- 추가로 '26년 예정된 미얀마의 의장국 자격을 잠정 박탈하고 차기 순번인 필리핀으로 이양(향후 반복 결정이 없을 경우 동 조치의 효력이 유지됨)
  - \* 原 의장국 순서(알파벳 국명 순) : 인도네시아('23) → 라오스('24) → 말레이시아('25) → 미얀마('26) → 필리핀('27)
- 이에 대해 미얀마 외교부는 결의문 발표 당일(9.5) 오후 의결사항을 회원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수용 거부 입장을 발표

### 아세안 5개조 합의(5PC)

- 군부 쿠데타 직후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21.4.24)에서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과 아세안 9개국 정상은 협의 후 채택
- 합의 조항은 △즉각적인 폭력의 중단 △미얀마 내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협의 추진 △아세안 특사의 파견 △인권 관련 아세안의 조력 △아세안 특사와 모든 정치세력의 접촉 허용 등임

## 나. 민정 이양의 지연

### ▣ '23년 총선 미 실시, '24년 실시도 불투명한 가운데 정식 정부 구성은 요원

- 국가행정위원회(SAC)는 연초 '23년 8월을 총선거 실시일로 잠정 발표했으나, 정세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기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 적용
  - 지방·소수민족 거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가 불가능, 인구조사 등에 난항
  - 일부 지역에서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피살, 사무소 공격 등 사보타주 사례 빈발
- 총선 실시는 최소 '25년 이후 실시 가능할 것으로 평가 (현지 정부 인사 의견 외신 보도)
  - 실제 인구조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상황 등의 사전 준비가 느리게 진행 중
- 총선의 지속적인 연기는 현 군정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군부는 舊 민주정권(NLD)이 압승한 '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정당한 선거의 재실시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단행, 집권한 바 있음

### ▣ 임시 통치 체제 연장으로 인한 대외 갈등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 국제사회로부터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민정 이양이 지속 지연됨에 따라 향후 대외 관계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됨
- 특히 국가행정위원회(SAC)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경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경우 내수 경기 부양 및 투자 환경 개선에도 부정적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



### 1

##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국정은 임시 통치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외환무역 통제를 강화
- 국제 금융 제재 확대에 인한 외환 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

### 가. 정치 환경

#### ▣ 군(軍)의 합법적 권한 행사가 보장된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

- 표면적으로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이 보장되는 문민 통치체제 유지

#### 〈정부 조직과 3권 분립〉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개 정부 부처 및 연방 검찰청(법무부 산하), 연방 감사원 등으로 구성</li> <li>*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간선제) 임기는 5년</li> </ul>
입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원제(상원 총 440석, 하원 224석)를 채택 중이며 의원 임기는 모두 5년임</li> <li>* '2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해산되어 현재까지 원이 구성되지 못함</li> </ul>
사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대법원, 卍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성</li> <li>* 현재 재판관은 대통령, 상·하원의장이 각 3명씩 임명</li> </ul>

- 실질적으로는 군부가 다양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개입 가능
  -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연방 상원의원 110명 및 하원의원 56명에 대한 지명권을 군 총사령관이 보유 (\*개헌 저지선 의석수와 동일)
  - 대통령 후보 3인 중 1인을 총사령관이 지명 (\*상·하원의장이 나머지 각 1명 지명)
  - 전군(全軍) 통수권도 대통령이 아닌 군 총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보유
- 특히 헌법 제419조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군 최고사령관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완전한 군정 체제로 전환, 현재까지 체제 유지 중

- 총선 결과에 불복한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 정권을 장악한 후 임시 통치기구로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를 설치
- 모든 정부 기관은 국가행정위원회(SAC) 산하 조직으로 편입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로 13개 핵심 부처에 군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함
- 이후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 연장하며 임시 통치 체제를 유지 중
  - 군부 쿠데타('21.2.1) 직후 최초 선포되어 '23년 1월 말까지 총 2회 자동 연장됐으며, 이후 헌법 제425조\*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23.2.1과 '23.8.1 추가 연장 조치함 (+6개월)
  - \* 헌법상 1년 선포 후 '정상(Normally)' 6개월 단위 연장을 2회 허용하나 군부는 現 상황을 비상 시국으로 판단

### 〈국가 비상사태 연장 상황〉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최초 선포(1년)				자동 연장				자동 연장		1차 연장		2차 연장(~'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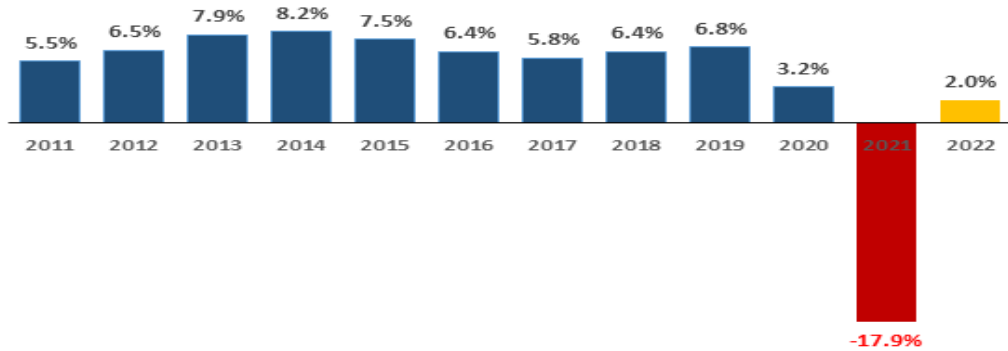
## ▣ (참고자료) 행정부 조직 개요 및 구조

### 〈국가행정위원회(SAC) 개요 및 구성('23.9.25 개편)〉

설치 근거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제4장에 명시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국가 운영 원칙에 따라 설치</li> <li>• 전국적 평화의 회복, 공정한 선거의 재실시 및 민정 이양을 목표로 국권을 대행</li> </ul>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 (부의장) 소윈(Soe Win) 부원수</li> <li>• (위원) 현역 군 장성 7명, 장교 1명, 친군부 소수민족 대표 1명, 및 친군 정당 前 의원 등 민간인 7명</li> </ul>



### 〈최근 10년간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 ▣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 이후 환율은 지속 상승, 외환 부족 현상도 심화

- 상당수 서방권 투자기업이 제재 리스크 속에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경제난에 따른 대외 신뢰도도 악화되며 현지화(Kyat)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57.9%)  
\* 미얀마 중앙은행 공식 환율(Kyat/달러) : 1,330('21.1월) → 1850('22.4월) → 2,100('22.8월)
- 특히 시중 거래 환율은 미얀마 중앙은행 공식 환율(2,100Kyat/달러)보다 61.9%가량 높은 3,400Kyat/달러까지 상승,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 ▣ 경제난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소비시장 전망도 부정적

-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양곤(Yangon)·만달레이(Mandalay) 등 대도시지역 무력 충돌 상황의 완화로 경제활동이 정상화, 내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임
- 단, 현지 정부의 외환 통제 및 무역 규제(수입 제한),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시장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환율 급등으로 식품식자재, 위생용품 등의 생활소비재 가격이 2~3배 상승하는 초(超)인플레이션이 발생,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있음

〈주요 생필품의 가격 상승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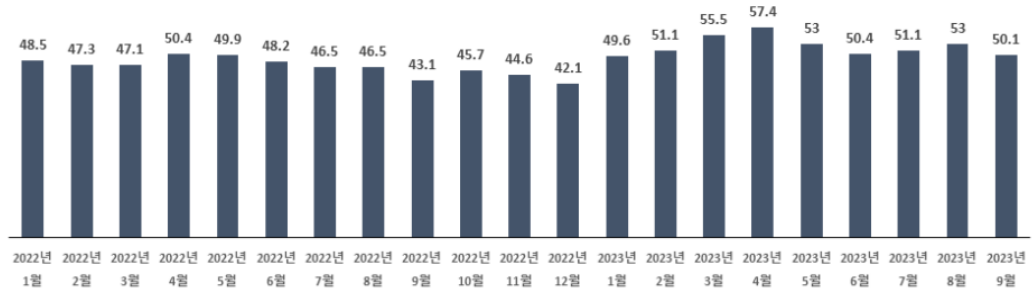
(단위: Kyat, %)

품목	세부품목(품종)	단위	2021.2월	2023.9월(추산치)	증감률
쌀	Emata 품종	Pyi	1,565.70	3,700	136.4%
설탕	평균가	Viss	1,255.00	3,950	214.74%
식용유	Groundnut oil	Viss	6,965.48	14,000	100.99%
	팜유	Viss	2,582.91	4,800	85.84%
콩류	Gram	Viss	2,398.48	7,000	191.85%
	Penilay	Viss	4,829.22	10,000	107.07%
	Pegyí	Viss	3,089.71	8,000	158.92%
	Satawpe	Viss	2,380.23	11,000	362.14%
육류	닭고기	Viss	6,784.76	8,000	17.91%
	돼지고기	Viss	10,515.72	17,000	61.66%
	소고기 (순살)	Viss	14,598.15	18,000	23.30%
	양고기 (순살)	Viss	23,165.75	28,000	20.87%
비누	평균가	개	512.00	850	66.02%
치약	평균가	개	727.00	2,000	175.10%

주: 현지화는 '미얀마 파트(Kyat)'로 환율은 \$1 = 2,100 Kyat임 (미얀마 중앙은행 공식 환율)  
 현지의 무게 도량형 Pyi = 2.13kg, Viss = 1.6kg으로 환산 가능  
 자료: 미얀마 통계청

- '22년 12월 42.1까지 하락했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며 '23년 4월 57.4까지 상승. 이후 美 은행의 달러화 증개 중단 소식이 발표되며 하락세로 재전환

〈2022년 1월~2023년 9월 구매자관리지수(PMI) 조사 결과〉



자료: IHS Mar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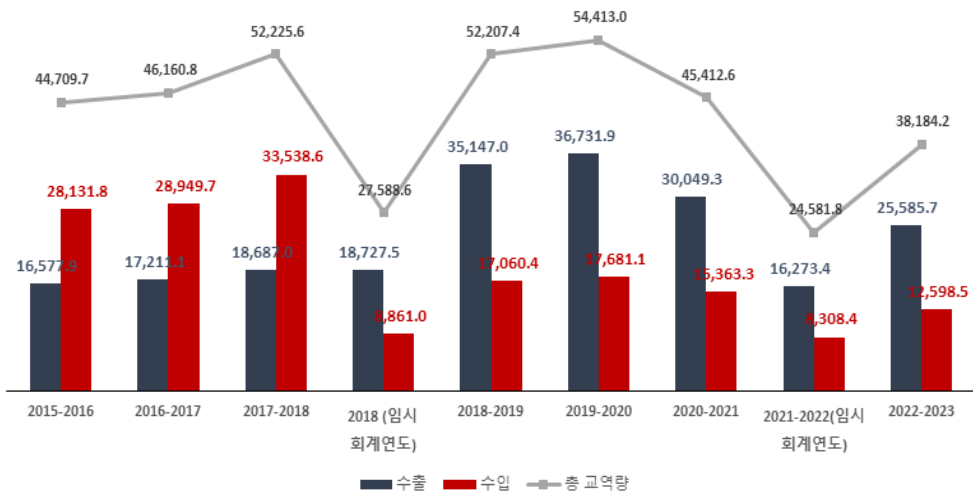
\*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 제조업체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재 신규 주문, 고용, 생산, 납품, 재고상황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향후 내수 소비에 대한 생산자들의 전망을 나타냄  
 \* 0~100 사이 수치로 표시되며, 0은 악화, 50은 유지, 100은 소비 진작 기대로 해석

## ▣ 대외교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적자가 확대되며 경제 부담이 가중

- 대외교역 규모는 경제 개방 이후 지속 증가했으나 '21년 군부 쿠데타로 외환·통관·물류 행정이 동시에 마비되며 전체 교역액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함
- '22년부터는 행정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의 정상화로 교역 규모가 회복됐으며, 특히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남
  - 지난해 12월까지 집계된 2022~2023 회계연도('22.4월~'22.12월) 수출액은 125억 9,853만 달러, 수입액은 129억 8,713만 달러로 1년 만에 적자 전환(-3.88억 달러)
- 현지 정부는 무역적자 확대를 경제 위기 가중요인으로 규정하고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한 각종 수입 제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 중임 (후술 정책규제 환경 항목 참조)

〈대외교역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상기 문단 및 표에서 기술한 연도는 미얀마식 회계연도임  
 자료: 미얀마 상무부

### 〈참고: 미얀마의 회계연도〉

- \*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2018년까지 '직전년도 4월부터 당해년도 3월까지'였으며, 이후 '직전년도 10월부터 당해년도 9월까지'로 회계기준을 개정함. 2022년에는 종전과 같이 '직전년도 4월부터 당해년도 3월까지'로 회계기준을 재개정함
- \* 회계기준이 변경된 시기 사이에는 조정을 위해 '임시 회계연도'를 설정함  
 : 2018 임시 회계연도(2018.4월~2018.9월) 및 2021~2022 임시 회계연도(2021.10월~2022.3월)

## ▣ 외국인 투자 환경은 정치 불안, 제재 리스크 및 현지 정부 규제 심화로 퇴조

- '21년 쿠데타 직후 인권 탄압 문제, 현지 정부·친군부 기업과의 거래 리스크, 치안 불안, 시장 규모 위축 등 비즈니스 저해 요인들이 잇따라 대두
- 실제로 美·英·EU 등 서방권 투자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며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승인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함
  - 2022~2023 회계연도 투자 승인액은 16.4억 달러로 2020~2021 회계연도의 43.3%에 그쳤으며, 5개월 수치가 집계된 2023~2024 회계연도 실적도 4.8억 달러로 부진
  - 현지 정부는 중국, 태국, 러시아 등 제3국 자본 및 내국인의 투자 확대를 통해 감소분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회복세는 관찰되지 않음

### 〈회계연도별 투자 승인액〉

(단위: 백만 달러)

2017~2018	2018 (*18.4~'18.9) *임시회계연도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1.10~'22.3) *임시회계연도	2022~2023	2023~2024 (*23.4~'23.8)
5,718.1	1,764.7	4,158.5	4,880.9	3,791.4	647.1	1640.7	484.2

\*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 〈주요 기업 투자 철수 상황〉

기업명	투자국	투자 분야	투자 철수 및 중지 상황
AEON	일본	쇼핑몰	현지 기업 Shwe Taung社와 합작으로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쇼핑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으나(AEON 지분 70%) 비상사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단
Kirin Holdings	일본	주류	군부 기업 미얀마 경제지주공사(MEHL, Myanmar Economic Holding Ltd)와 합작으로 주류 사업에 투자, Myanmar Brewery 및 Mandalay Brewery 지분 51%를 소유 중이었으나 불매 대상이 되는 등 사업 실적 악화 끝에 2022년 9월 철수를 완료
Lim Kaling	싱가포르	담배	미얀마 경제지주공사와 Tobacco Group에 합작 투자 중이었으나 투자금 회수를 결정
Amata Corporation	태국	부동산 개발	1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중단
Woodside	호주	에너지	2022년 1월에 해상광구를 약 2억 9,500만 달러에 매각하고 철수
Telenor	노르웨이	통신	군부 인권 탄압 문제, 사업성 악화로 사업 철수를 추진 중
Total Energies	프랑스	에너지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가스전 개발사업 철수를 발표
Chevron	미국	에너지	

- 또한 현지 정부의 외화 강제 환전 조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고위험국 지정, 싱가포르 은행의 달러화 거래 중단 등으로 외환 거래 환경이 악화

## 다. 산업 환경

### ▣ 경제 개방 이후 2·3차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농업생산량을 추월

- 2차산업 생산의 대부분은 제조업이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의 핵심 산업인 CMP(Cut-Make-Pack) 기반의 봉제업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 경제 개방 이후 외국 자본의 투자로 운송, 유통, 통신 등 서비스업도 크게 발달하며 국내총생산(GDP) 기여도에서 1차산업을 추월함
- 단, 농업생산량은 2020~2021 회계연도 발표 기준 국가 전체 산업 생산 대비 13.98%로 나타나는 등 GDP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

#### 〈산업별 생산액 및 비중〉

(단위: 십억 Kyat, %)

구분	세부 분야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비중
1차산업	농업	13,964.8	14,426.6	14,849.8	15,131.3	14.0
	축산업, 수산업	7,058.6	7,962.9	8,652.2	9,333.5	8.6
	임업	83.2	87.5	85.6	65.2	0.1
2차산업	에너지 관련	3,422.8	4,686.3	4,267.4	3,239.5	3.0
	광업	902.0	1,026.5	1,114.2	840.3	0.8
	제조업	21,575.9	26,062.3	28,801.5	27,717.5	25.6
	발전산업	1,207.2	1,474.7	1,906.9	1,765.3	1.6
	건설업	5,720.9	6,707.2	7,417.3	6,617.9	6.1
3차산업	운송업	10,003.8	11,838.8	12,085.2	10,708.4	9.9
	통신업	1,785.1	2,077.8	2,263.1	2,334.0	2.2
	금융업	297.9	392.7	418.9	393.1	0.4
	서비스업	2,920.4	3,458.4	3,609.9	3,604.6	3.3
	임대업, 기타 서비스	2,718.8	3,418.6	3,604.9	3,408.0	3.2
	도소매, 유통업	18,789.7	21,638.3	23,692.8	23,047.1	21.3
계		90,450.9	105,258.5	112,769.7	108,205.7	100.0

주: 현지 회계연도로 표기했으며 수치는 2020~2021 회계연도까지 발표됨  
 자료: 미얀마 기획재정부

▣ (농업) 생산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수출기여도가 높은 전통적 기간산업

- 실질GDP 기여도는 13.98%로 제조업(25.6%), 도소매·유통업(21.3%)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며, 종사자 수는 노동인구의 대부분인 68%에 이룸
- 넓은 경지면적과 다양한 기후 등 작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농산물 상품화 및 산업화 잠재력이 높음
- 주요 재배 작물은 쌀, 콩류 및 옥수수이며, 특히 콩류 생산량은 아세안 국가 중 2위이며, 쌀 생산량은 4위를 차지하고 있음

〈아세안(ASEAN) 국가별 농업생산량 (2021년 자료)〉

국가	총 국토면적 (천Ha)	총 경지면적 (천Ha)	GDP 비중 (2020년, %)	쌀 생산량 (천 MT)	옥수수 생산량 (천 MT)	콩류 생산량 (천 MT)
브루나이	527	13.4	0.8	4.1	0.7	0
캄보디아	17,652	5,566	17.3	10,935.6	821.8	31.0
인도네시아	187,751	62,300	12.4	55,534.5	24,045.0	394.9
라오스	23,080	2,394	13.9	3,816.8	627.7	6.2
말레이시아	32,855	8,571	7.1	2,293.8	0	0
미얀마	65,270	12,798.4	13.2	25,991.3	2,075.7	194.6
필리핀	29,817	12,440	10.2	19,546.5	8,265.2	0.6
싱가포르	70.9	0.6	0	-	0	0
태국	51,089	22,110	6.2	29,811.2	4,787.6	27.2
베트남	31,007	12,388	13.6	43,346.6	4,859.0	80.6

자료: Asean Statistics

- 농가별 경작 규모가 영세하고 농업기계화율도 낮아 대량생산을 통한 농산물 상품화 및 농업의 산업화 추진에는 한계를 보임
- \* 농가의 80% 이상이 10에이커 이하의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영세농민으로 추정

▣ (제조업) CMP 봉제업 등 임가공 중심으로 발달, 산업 인프라는 열악한 편

- 제조업의 국가 GDP 기여도는 25.6%로 가장 높으며, 특히 CMP(Cut-Make-Pack) 방식의 봉제 가공업 생산품이 대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순 임가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 창출 효과는 높은 반면, 기술 이전 효과는 낮음
- 또한 전력, 도로, 항만 및 물류 시스템 등 제조업 발달에 필수적인 산업 인프라가 열악하며,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

#### ▣ (광업·에너지산업) 유용한 천연자원 다량 보유, 탐사개발 기술은 부족

- 지질구조가 다양해 우라늄(Uranium), 페그마타이트(Pegmatites),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주요 광물 및 루비, 옥(Jade) 등 귀금속의 매장량이 풍부함
- 해상 광구에는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음  
\* 천연가스 매장량 : 2,832억㎥(세계 40위), 원유 매장량 : 5,000만 배럴(세계 75위)
- 단, 탐사 및 채굴을 위한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해 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 (서비스업) 외국 자본의 투자를 계기로 발전,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은 편

- 2010년대 중반 경제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의 도소매업, 유통업 및 보험업 진출이 허용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함
-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2%로 전통적 기간산업인 농업의 GDP 기여도를 추월했으며,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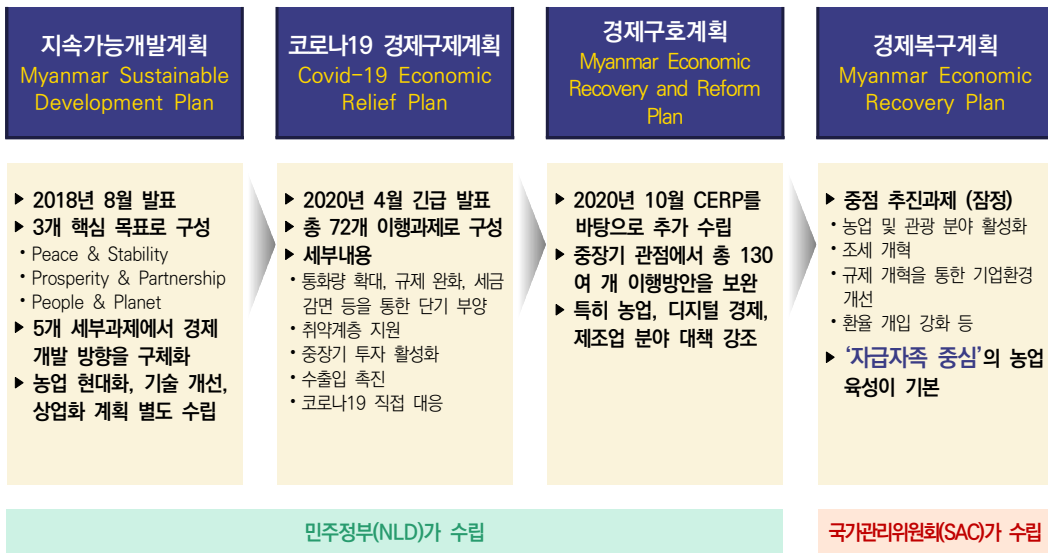
## 라. 정책·규제 환경

#### ▣ 자금자족 경제 실현을 목표로 농업 육성 정책 시행

- 舊 민주정권(NLD)과 現 미얀마 군정 모두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농업 육성 및 기간 산업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
  - 투자대외경제관계부는 민주정권이 수립했던 ‘중장기 경제구조개혁(MERRP, Myanmar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Plan)’을 바탕으로 구성한 ‘경제회복계획(MERP, Myanmar Economic Recovery Plan)’을 추진 중

- 현재 집권 중인 군정의 경제회복계획(MERP)은 '자급자족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 육성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본 구상은 NLD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동 정책의 기초는 농기계·화학비료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우선 발급, 쌀 생산 증대 계획 등 실제 무역·투자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경제계획별 농업 육성정책 세부 사항〉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에 기반하고 있으며 '농업 육성'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중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외환무역 통제 조치의 도입

- 국제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22년부터 외화 유출 방지와 환율 방어를 위한 각종 금융 규제와 무역 통제 조치를 도입
-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외화 강제 환전 조치와 수입 라이선스 적용 범위 및 심사 강화 조치로, 이후에도 통제를 확대하는 세부 규정들이 추가 발표됨
- '22~'23년에는 이와 같은 미얀마 정부 규제 외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들도 추가 확대되며, 현지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대내외 리스크 발생 및 규제 발표 일자〉

발표일	현안 및 규제	주요 내용
2021.2.1	군부 쿠데타 발생	군부, 국가 비상사태 선포,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 부과 시작
2022.4.3	<b>중앙은행 4.3 조치 발표</b>	달러화 강제 환전, 보유 금지, 역내 송금 금지 외환감독위원회(FESC)를 신설하고 대내외 외환거래 통제 시작 * 중앙은행 공식 환율(1,850Kyat/달러) 지정
2022.6.1	<b>수입 라이선스 제도 강화</b>	상품 수입 시 건별 발급되는 수입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 * 무역적자로 인한 외화 유출 방지 목적
2022.8.5	중앙은행 공식 환율 상향 조정	1,850Kyat/달러 → 2,100Kyat/달러 (* 이후 현재까지 추가 조정은 없음)
2022.10.21	<b>FATF, 고위험국 지정</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얀마를 '고위험국' 중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 필요국(EDD, 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으로 하향
2023.4.1	<b>JP모건궤 달러화 중개 중단</b>	美 JP모건체이스 은행, 미얀마 현지 은행 向發 달러화 중개 중단 → 국제 달러화 송금망 대부분이 단절
2023.6.20	<b>美 재무부, 국책은행 제재</b>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FTB), 투자상업은행(MICB) 등 2개소 대상
2023.7.3	<b>중앙은행, 무역대금 송금 통제</b>	[수입 라이선스 선발급 후 선적 완료] 조건 미충족 거래에 대한 달러화 송금 금지
2023.8.21	<b>중앙은행, 외환관리법 엄수 경고</b>	'1인당 1만 달러 이내만 보유 허용(최대 6개월)' 규정 엄수 경고
2023.9.1	<b>싱가포르계 은행, 달러화 중개 중단 동참</b>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JP모건의 달러화 중개 중단 조치에 동참 * 他 싱가포르계 은행들이 동참할 경우 사실상 모든 달러화 거래 창구 단절

[규제·제재 주체별 표기 구분]

- \* 현지 정부 규제 조치 : 붉은 음영
- \* 국제사회 제재 조치 : 노란 음영

### 〈금융 통제〉

#### ▣ 환율 방어 및 정부의 외환 통제력 강화를 위한 금융 통제 조치 ('22.4.3부)

-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 위기 타개를 위해 자국 내 개설된 계좌의 ①달러화 강제 환전, ②계좌 간 거래 금지 및 ③해외 송금 제한 조치를 단행

- 별도 공지로 지정한 예외 적용 대상 이외 모든 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
- 통제 실행 및 관리·감독을 위해 최고위 통제기구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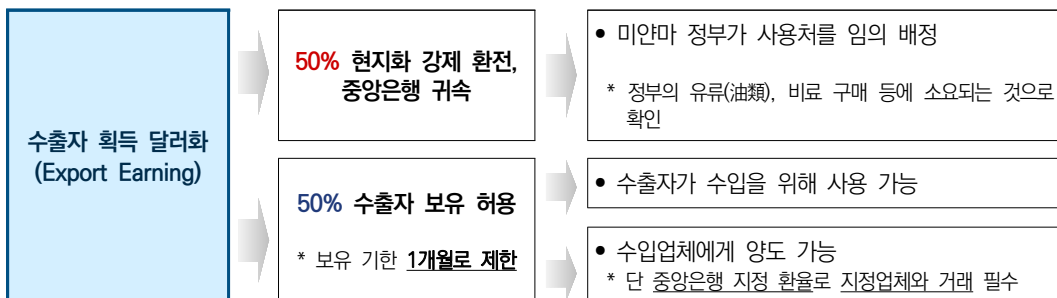
**〈주체 유형별 외환 보유·거래 제한 내용〉**

거래 유형	예외 적용 대상	그 외 모든 주체
달러화 보유	<b>가능</b> 4.3 전후 송금받은 달러화보유 가능	<b>불가</b> 보유 달러화 일괄 강제 환전 *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의 50%를 1개월간 보유 가능
계좌 거래	자국 내 송금	<b>불가</b> 역내 계좌 간 달러화 이체 금지
	해외 송금	<b>조건부</b> 외국인 급여 역외 이체, 자본금 회수, 배당, 원자재 구입대금 송금 허용 (FESC 승인 必) <b>조건부</b> 수입대금 송금 허용 (FESC 사전 승인 必) * 달러화 매입 승인 절차 선행 필요
	달러화 매입	<b>조건부</b> 사용 목적 검토 후 승인 (FESC, 중앙은행) * 필수재 수입용 달러화 매입 조건부 승인 <b>조건부</b> 사용 목적 검토 후 승인 (FESC, 중앙은행) * 필수재 수입용 달러화 매입 조건부 승인
	달러화 인출	<b>조건부</b> 사무실 운영비로 제한 (은행 심사 必, 한도 有) <b>불가</b> 현지화 환전 인출만 허용 (한도 有)

자료: 예외 적용 대상 :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 MIC) 등록 기업, 경제특구(SEZ) 입주 기업, 외국인 지분을 35% 이상 기업, 자국 항공사 및 외교관, 국제기구 외국인 직원 등

- 동 조치에 따라 수출기업이 획득한 달러화의 50%는 강제 환전되며, 나머지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하거나 중앙은행 지정 수입업체에게 양도해야 함

**〈수출기업 획득 외화 보유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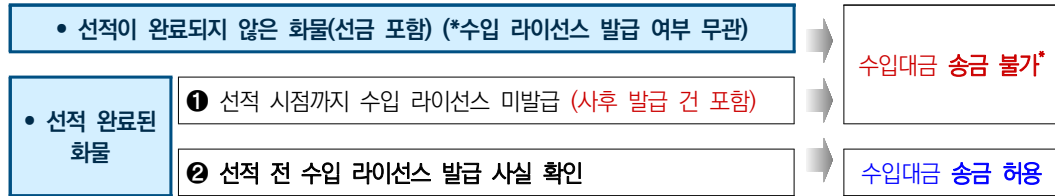


- 중앙은행은 강제 환전 시 지정 환율(달러당 2,100Kyat)을 적용 중
  - 규제 도입 시 달러당 1,850Kyat이었으며, '22.8.5부 상향 조치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
  - 실제 시장거래환율(달러당 약 3,400Kyat, '23.9월 기준)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 무역대금에 대한 실질적 통제 강화를 위한 송금 제한 조치 도입 ('23.7.3부)

- 수입자가 수입 라이선스를 선(先)획득하고 화물 선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에 한해 외환(수출대금) 송금을 허용
  - 수입 라이선스 미취득, 선적 미완, 선적 후 라이선스 취득 건은 송금 불허
  - 거래 관련 선금(계약금 포함)의 송금은 원칙상 금지

### 〈상황별 외환 송금 가능 여부〉



자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선금 지불 건은 외환감독위원회(FESC)가 사전에 건별 검토 후 승인

- 단, 실제 외환감독위원회는 선금 지불 승인 여부를 ①수입 대상 품목의 필수재 해당 여부, ②지불 통화의 유형(中 위안화, 泰 바트화 우선 고려) 등으로 판단 중
  - ☞ 사실상의 수입 품목 및 통화 제한 조치로서 기능

## 《무역 통제》

### ▣ 수입 라이선스 적용 범위 및 심사 절차 대폭 강화 ('22.6.1부)

- 사전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하는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HS 코드 10자리 기준 총 11,849개 품목으로 확대, 유효기한도 30일(아시아 지역) 및 45일(그 외 지역)로 크게 단축함
  - 기존 발급 대상은 HS 코드 10자리 기준 총 4,405개 품목이었으나 제도의 강화로 사실상 전(全) 품목이 라이선스 통제의 대상이 됨
- 미얀마 상무부는 일부 필수재(유류, 의약품, 비료, 농기계 등)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치재'로 규정하고 라이선스를 후순위 부여 중
- 실제 대부분의 품목은 라이선스 발급에 최대 6개월 소요 중
  - 위안화(中)·바트화(泰) 육로 수입 건 한정 1개월 이내 발급 중임을 확인

〈참고 :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I/L)〉

- 미얀마 상무부가 지정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가 사전에 거래 건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 (License)로, 1947년 제정된 수출입법(Myanmar Import and Export Act)에 근거하여 과거부터 시행되어옴
- 舊 민주정부는 경제 개방을 계기로 발급 대상 품목의 점진적 축소를 추진한 바 있으나,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은 외화 유출 방지 및 자국 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를 대폭 강화, 사실상의 무역규제로 발전함

《국제사회의 추가 금융 제재》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22.10.21)

- ’22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FATF 정기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미얀마를 고위험국(High risk Jurisdiction) 중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Enhanced Due Diligence) 필요국으로 지정함
- 동 결정에 따라 미얀마 민간은행들의 외환 거래 여건이 크게 악화됐으며,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미얀마 향발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함

〈단계별 조치 내용 및 대상국〉

단계	조치 내용	대상 국가
①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①-(1) 대응 조치 (Counter-measure)	금융 거래 전면 금지 등 북한, 이란
	①-(2) 강화된 고객 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 거래 시 고객 확인 강화 미얀마
②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시스템 개선	시리아, 튀르키예 등 23개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 (설립 목적 및 성격) 1989년 G7 합의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 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
- ◆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기준의 마련, 회원국 간 상호 평가감독의 실시. 비협조국 및 국제 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금융 제재 결정 등

## ▣ 달러화 중개 중단으로 인한 국제 결제망 단절 ('23.4.1)

- '23년 4월 1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요 은행들이 현지 은행과의 달러화 거래를 전면 중단, 글로벌 중계망을 통해 미안마로 달러화를 송금하거나 미안마로부터 달러화를 송금받을 수 없게 됨
  - \* 美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뉴욕멜론(BNY Mellon) 중개 비중 높은 은행이 단행
- '23년 10월 1일부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이 중단 조치에 동참하며 달러화 송금망 고립이 더욱 심화

■ 외국계 은행 지점-본점 송금을 이용할 경우 : 가능



■ 미안마 현지은행-수출기업 즉 은행이 환거래 관계인 경우 : 가능



■ 싱가포르 은행을 통한 중개 : 중단



■ 미국계 은행을 통한 고차 중개 : 중단



- (ESG) 유럽연합(EU), 미안마 근로자 인권·노동권 관련 무역 특혜(EBA) 철회 움직임
  - 미안마 군정의 봉제공장 근로자 인권 탄압 사례가 EU에 지속 보고되며 유럽 내에서 미안마발(發) ESG 이슈가 대두됨
  - 실제로 H&M, Zara, 인디텍스 등 다수의 유럽계 의류기업들이 ESG 리스크를 사유로 미안마로부터의 소송 중단을 선언함
  - EU 집행위는 '적극적 개입' 대상인 미안마의 인권·노동권 현황 평가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무역 특혜(EBA, Everything But Arms)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함을 시사('23.8.24)

### EBA(Everything But Arms) 및 '적극적 개입'의 개념

- (EBA 적용 대상) UN이 분류한 최빈개도국(LDC)으로 미안마 포함 27개국이 이에 해당됨
- (내용)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 무기·탄약 외 전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쿼터를 면제
- (적극적 개입) 특히 '17년부터 수혜 대상 3개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안마)을 '적극적 개입(enhanced engagement)' 대상으로 지정, 해당국 인권상황의 추가 모니터링 방안 및 문제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
  - \* 실제로 EU 집행위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사유로 캄보디아에 대한 EBA 관세 일부 철회('20.12월)

- 미얀마 봉제협회(MGMA, Myanmar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EU 집행위 발표 내용에 우려를 표명('23.8.25)
  - \* 글로벌 기업의 철수는 현지 일자리 감소 및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
- 현지 봉제 생산업에 다수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도 EU의 결정과 향후 ESG 이슈의 향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ESG 대응 실패 시 유럽發 주문 감소, 거래선 단절 등 실질적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잠재력 높은 아세안 제일의 유망 시장이나 정치 불안 및 인프라 부족 등 위험요소 산재
- 교역 정상화 이후 무역적자가 지속 확대 중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도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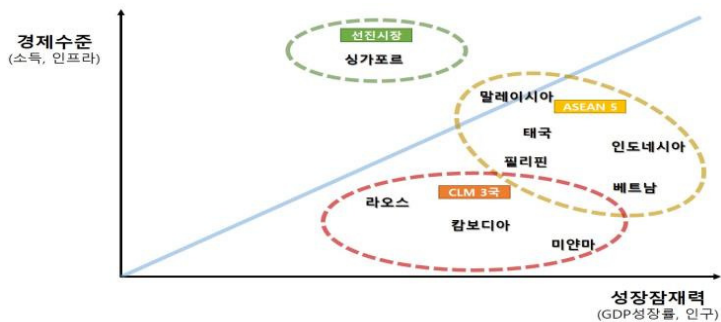
## 가. 시장 특성

### ▣ (시장 특성) 최종 소비자·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저(低)개발국

- 제조업 생산 기술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생활소비재, 첨단제품 및 필수재를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수입 비중이 큰 편임
- 특히 전방산업 부재로 필수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이를 활용한 생산도 단순 임가공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반(半)제품 수입 비중이 높음
- 경제 개방 이후에는 계층별 소득 격차가 확대, 구매력 차이가 발생하며 소비시장의 세분화 현상(Market Segmentation)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 (전략적 가치) 소비·생산 거점으로 잠재력 높은 아세안(ASEAN)의 유망 시장

- 캄보디아·라오스와 함께 아세안 지역의 마지막 저개발 신흥시장(CLM 3국)으로 분류되며 젊은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소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 ☞ 장기적 관점에서 선점 필요성이 높은 유망 시장으로 평가
- 농산물, 목재, 광물 등 원자재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고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어 제조업 생산 거점으로 유망
  - 가공식품 제조용 농산물, 목재용 산림자원 및 지하자원 매장량 등이 풍부
  - 봉제업 노동자 평균 임금은 베트남의 절반 수준이나 생산 역량은 약 80%로,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이 1.6배 높은 것으로 평가



## 나. 교역

### ■ 첨단기기, 가전제품 및 생활소비재 등 완제품 수입 비중이 높은 신흥 시장

- 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및 소비재 등이 주요 수입 대상
  - 제조업은 단순 임가공(봉제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공산품 대부분의 수입이 필수
  - 특히 전자제품, 가전, 전기차, 의료기기 등 전방산업의 발달이 요구되는 제조업 생산품은 향후에도 해외로부터의 완제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예상
- 식용유(팜유), 위생용품 및 의약품 등 기초생활 필수재의 수입 의존도도 높은 편
  - 자체 생산되는 콩기름의 품질이 낮아 인도네시아産 팜유 수입 비중이 높음
  - 의약품의 경우 사실상 생산 역량이 없어 거의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 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소비재 및 필수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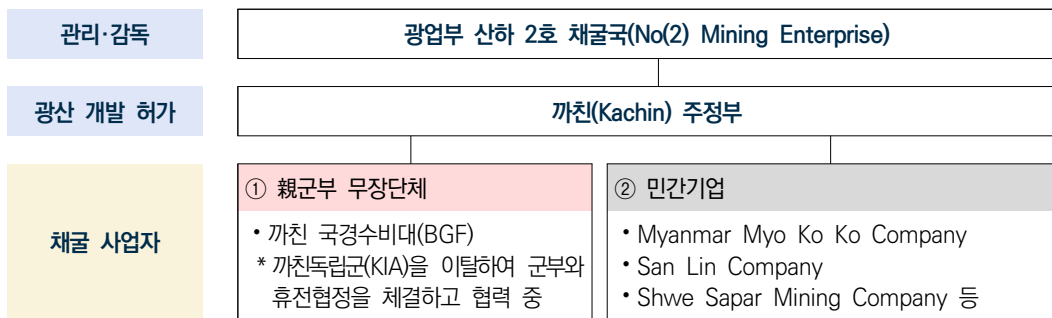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회계연도(미얀마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21.10~'22.3) *임시회계연도	
	미얀마 전체 수입	19,050.9		14,681.9		7,964.9	
1	정제유	2,927.4	15.4%	2,337.8	15.9%	2,225.0	27.9%
2	기계 및 운송 수단	3,271.8	17.2%	2,391.2	16.3%	610.6	7.7%
3	비철금속 및 제조품	2,102.7	11.0%	1,237.8	8.4%	600.0	7.5%
4	전자 기기 및 기구	2,209.4	11.6%	1,114.6	7.6%	435.5	5.5%
5	플라스틱	811.3	4.3%	614.9	4.2%	361.8	4.5%
6	식용 식물성 기름 등	651.6	3.4%	881.5	6.0%	441.1	5.5%
7	의약품	555.3	2.9%	485.1	3.3%	319.1	4.0%
8	비료	394.7	2.1%	338.5	2.3%	223.2	2.8%
9	화학혼합물	183.3	1.0%	145.3	1.0%	86.6	1.1%
10	시멘트	69.4	0.4%	77.4	0.5%	17.8	0.2%
	상위 10개 품목 합계	13,176.90	69.2%	9,624.10	65.6%	5,320.70	66.8%

자료: 미얀마 통계청

## ▣ 산업용 원료 및 장비의 해외 수입 의존도도 높은 편

- 농업생산량 유지에 필수적인 비료·농약 및 종자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농촌 현대화 정책 추진 이후에는 농기계 수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 중
- 자국 핵심 산업인 봉제업도 섬유·원단 및 액세서리(단추, 지퍼, 기타 금속재 장식품) 등 주요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경제 개방 이후에는 건설업이 활성화되며 시멘트, 바닥재, 기타 건축자재 등의 수요도 증가 (단, '22년 이후에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수입이 감소)
- (공급망) 미얀마 희토류 생산 현황 및 국내 공급 가능성
  - (부존자원) 가치가 높은 중(重)희토류가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디스프로슘(Dy)과 테르븀(Tb) 연간 생산량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함
  - (채굴지역) 북부 까친(Kachin)주의 반와(Pangwar), 치궐(Chiphwe) 지역에 분포하는 총 100여 개의 광산에서 채굴이 집중적으로 이뤄짐
  - (생산량) '20년 3만 톤(전 세계의 12.5%)을 생산했으며 비상사태 이후 채굴 및 수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반와(Pangwar), 치궐(Chiphwe) 지역 채굴량은 5배 증가 추정(현지 언론 Irrawaddy), 對中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英 Roskill Information Services)
  - (생산체제) 광업부(Ministry of Mines)와 주정부가 채굴사업을 총괄, 親군부 무장 단체와 일부 민간기업들이 광산을 운영 중



- (수출)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은 중국이 유일한 수출대상국이며,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채굴을 규제한 이후 수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

〈최근 5년간 희토류 화합물 수출 동향〉

수출대상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국	6,110	4,097	12,396	63,930	146,167	388,573
전체	6,110	4,097	12,396	63,930	146,167	388,573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특히 '23년 이후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채굴 및 對中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명확한 수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함 (현지 광업부 통제권 외)

- (국내 공급) 해당 품목에 대한 현지 정부의 對韓 수출 규제는 없으나 채굴 주체와 미얀마 군부의 연관성, 채굴 과정에서의 인권 탄압 및 환경 파괴 문제 등 ESG 경영 관련 리스크가 다수 존재하므로 공급선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

다. 투자

▣ 싱가포르·중국·태국 등 인근국의 자원·에너지 분야 투자 활발

- 주요 유치 분야는 전력(260.5억 달러, 28.2%)이며, 석유가스 개발(227.7억 달러, 24.7%), 제조업(132.2억 달러, 14.3%), 교통·통신업(113.5억 달러, 12.3%), 부동산 개발업(66.6억 달러, 7.2%) 등도 높은 비중을 보임
- 경제 개방 이후 활발했던 제조업, 부동산 개발, 교통·통신업 분야 투자는 '2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급감
  - '22년에는 전력 및 제조업 분야 투자만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의 대부분은 봉제업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됨

〈산업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8 (*18.4~*18.9) *임시회계연도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21~2022 (*21.10~*22.3) *임시회계연도	2022~ 2023	2023~ 2024 (*23.4~*23.8)
전력	92.6	93.3	1,026.9	3,121.3	20.6	820.3	317.2
제조업	706.6	1,347.8	1,128.2	286.0	202.7	271.8	63.5
부동산 개발	280.3	210.9	1,115.9	8.0	38.8	29.0	
광업	6.0	-	3.8	-	-	7.0	
농업	10.6	19.1	17.7	9.9	5.0	3.5	2.6

구분	2018 (*18.4~*18.9) *임시회계연도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21~2022 (*21.10~*22.3) *임시회계연도	2022~ 2023	2023~ 2024 (*23.4~*23.8)
어업/축산	32.9	156.8	138.4	19.7	19.4	2.2	23.1
호텔/관광	9.5	82.6	53.3	81.0	30.5	2.8	-
산업단지	34.4	48.5	273.4	28.2	-	-	-
석유/가스	-	10.2	352.8	-	-	-	-
교통/통신	314.1	1,538.4	300.4	133.5	45.6	-	77.8
건설업	-	-	-	-	65.0	-	-
기타 서비스업	277.1	650.7	469.7	103.7	219.6	504.1	-
합계	1,764.7	4,158.4	4,880.9	3,791.4	647.1	1,621.4	484.2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

- '23년 8월 누적 투자금액 기준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261.7억 달러, 28.1%)이며, 중국(218.7억 달러, 23.5%), 태국(117억 달러, 12.5%), 홍콩(100.3억 달러, 10.8%), 영국(74.8억 달러, 8.0%) 등이 뒤를 이음

### 〈국별분야별 누적 투자유치액(~'23.8월)〉

(단위: 건, 억 달러, %)

순위	국별	건수	투자액	비중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1	싱가포르	374	261.7	28.1	전력	48	264.8	28.5
2	중국	606	218.7	23.5	석유/가스	154	227.7	24.5
3	태국	153	116.1	12.5	제조업	1502	133.8	14.4
4	홍콩	293	100.3	10.8	교통/통신	63	115.1	12.4
5	영국	111	74.8	8.0	부동산 개발	66	65.9	7.1
6	한국	198	42.0	4.5	호텔/관광업	91	32.8	3.5
7	베트남	31	22.2	2.4	광업	71	29.1	3.1
8	말레이시아	69	19.6	2.1	축산/어업	80	9.7	1.0
9	일본	125	18.6	2.0	산업단지 개발	10	6.2	0.7
10	네덜란드	25	15.7	1.7	농업	44	4.5	0.5
11	기타	310	41.0	4.4	건설	3	1.0	0.1
12	-	-	0.0	-	기타 서비스	163	40.1	4.3
-	별도(SEZ)	122	21.9	2.3	별도(SEZ)	122	21.9	2.3
-	합계	2,417	952.8	-	합계	2,417	952.8	-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 ▣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는 투자 진출 리스크 증가

- 정치세력 간 갈등(무력 충돌, 불매운동),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 투자 진출 기업의 경영 여건을 저해하는 악재가 반복적으로 발생 중
- 금융·물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전력·도로망 등 산업 인프라의 부실, 현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법제 변경도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특히 외화 강제 환전, 수입 라이선스 심사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경제 보호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어 향후 투자 환경 개선도 불투명

## 가. 교역

## ▣ 국가 비상사태 이후 교역 위축, 對미안마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

-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년까지 10억 달러 내외를 유지했으며, 우리나라가 36년간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함 (\* '18년 일시 소규모 적자(252만 달러) 기록)
- '21년 국가 비상사태 발생 이후 교역 규모는 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4.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도 7,783만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
- 對미안마 수출은 '22년에도 3.84억 달러로 부진을 이어갔으나, 수입은 대폭 증가(6.29억 달러)하며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2.4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23년 8월까지 집계된 무역통계에도 적자가 지속 중임이 나타남
  - 현지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인 미용·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

## 〈對미안마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2014년	800,131	13.5	579,894	18.9	220,237
2015년	659,895	-17.5	505,679	-12.8	154,215
2016년	760,717	15.3	458,666	-9.3	302,051
2017년	573,209	-24.6	463,336	1.0	109,837
2018년	534,059	-6.8	536,583	15.8	-2,524
2019년	631,596	18.3	595,191	10.9	36,404
2020년	608,927	-3.6	465,871	-21.7	143,056
2021년	367,934	-39.6	445,759	-4.3	-77,825
2022년	384,321	4.5	629,081	41.1	-244,760
2023년(~9월)	309,540	3.0	418,706	-11.2	-109,166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 품목별 교역 동향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정밀화학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플라스틱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기술집약적 고(高)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
- 봉제업 원자재인 직물 및 섬유제품과 현지 농업 생산력 유지에 필수적인 비료도 對 미얀마 수출 상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함

### 〈對미얀마 10대 수출 품목(2023년 9월 기준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21년		2022년		2023.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67,934	-39.6	384,321	4.5	309,540	3.0
1	수송기계	46,875	-51.6	6,901	-85.3	66,805	1,031.3
2	정밀화학제품	49,070	-18.3	57,341	16.9	46,882	7.4
3	직물	41,267	-36.8	50,431	22.2	30,533	-18.3
4	섬유제품	27,568	-12.4	34,966	26.8	27,325	-1.2
5	산업기계	53,325	-35.9	31,220	-41.5	16,961	-36.1
6	비료	17,950	-9.9	21,629	20.5	16,477	-4.3
7	석유화학제품	12,836	-13.4	17,482	36.2	13,437	-14.9
8	플라스틱제품	24,458	-24.2	21,124	-13.6	13,007	-14.8
9	가죽 및 모피제품	6,104	-39.9	10,927	79.0	8,035	-6.5
10	산업용전자제품	4,305	-54.8	9,754	126.6	7,760	-5.3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품목 코드는 MTI 2단위 기준)

-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봉제생산품(섬유제품),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된 생활용품 및 잡화 등 노동집약적 저(低)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
-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은 최근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10대 수입 품목(2023년 9월 기준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45,759	-4.3	629,081	41.1	418,706	-11.2
1	섬유제품	328,032	0.5	481,876	46.9	335,418	-4.7
2	기타 생활용품	21,641	-30.8	25,825	19.3	20,026	0.3
3	농산물	30,235	-14.8	46,087	52.4	19,610	-47.8
4	비철금속제품	24,605	10.2	29,966	21.8	15,473	-42.7
5	생활용품	15,732	2.8	15,709	-0.1	10,019	-17.7
6	수산물	5,537	-39.9	9,407	69.9	7,554	21.5
7	임산물	8,800	-36.2	7,878	-10.5	2,446	-65.5
8	제지원료및종이제품	2,654	-27.0	3,302	24.4	1,820	-26.4
9	수송기계	3,276	140.9	3,530	7.8	1,642	-42.3
10	기초산업기계	995	458.6	1,200	20.7	1,316	37.4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품목 코드는 MTI 2단위 기준)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품목 : 화학비료 / 성약 규모 : 1,600만 달러 (기업명은 영업상 사유로 비공개 처리)
- 수출 의의 : 현지 정부가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해 비(非)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을 제한 중인 가운데 성약을 이룬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대상 품목(현지 정부 지정 자국 산업 필수재)'으로 향후 현지 진출 주력 품목 다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현지 공급망 특성을 활용한 성약 사례로도 유의미)

## 나. 투자 진출

### ▣ 투자 진출 규모 및 분야

- '22년 말까지 집계된 對미얀마 누적 투자액\*은 69.8억 달러로 나타남
  - '22년 투자액은 총 1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23.9%↑)했으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전 최대치(7억 2,900만 달러, '20년)를 회복하지 못함
  - \* 단, 對미얀마 투자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 198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집계한 투자신고금액 합계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합산한 투자승인액과 상이함

### 〈연도별 對미안마 투자신고액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누 계
71 (154)	329 (178)	319 (199)	194 (159)	211 (211)	729 (101)	146 (49)	181 (38)	6,980 (1,4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 유망 분야 및 성공 사례

-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최대 장점인 국가로, 단순 임가공 형태의 '노동집약형 제조업' 투자 진출에 유리
- 특히 섬유·의류 제조기업 S사, H사, T사 등 CMP(Cut-Make-Pack) 방식의 봉제 생산기업들이 현지에 진출,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며 미안마 제조업을 견인 중임
- \* 현지 진출 한국 기업 300여 개사 중 약 120개 사가 봉제 생산기업으로 고용 인원은 약 6만 명으로 추산

- 업종별로는 광업(39.5억 달러), 금융업(10억 달러), 제조업(8.8억 달러), 운수 및 창고업(7억 달러)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짐
  - 광업 투자는 자원 개발, 제조업 투자는 봉제업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

### 〈對미안마 업종별 투자 통계(2022년 기준 누계)〉

(단위: 건, 개 사, 천 달러, %)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39	14	31	0.44	12	0.24
광업	24	9	3,945	56.51	3,120	61.34
제조업	600	165	886	12.69	623	12.25
건설업	129	69	17	0.24	10	0.20
도매 및 소매업	104	53	103	1.48	84	1.65
운수 및 창고업	86	15	704	10.08	339	6.67
숙박 및 음식점업	2	10	63	0.90	2	0.04
정보통신업	22	8	4	0.06	4	0.08
금융 및 보험업	105	26	1,010	14.47	761	14.96
부동산업	95	24	183	2.62	111	2.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7	49	13	0.19	10	0.20
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42	22	8	0.11	5	0.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5	3	1	0.01	0	0.00
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업	13	4	7	0.10	2	0.04
기타	48	15	6	0.09	3	0.06
합계	1,421	486	6,981	100	5,086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다. 협력 유망 분야

- (B2C 근로자 인적 교류 확대) 현지 근로자를 선발, 송출 후 일자리 제공
  - (韓) 노동 유연성 부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
  - (미얀마)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 확대 및 기능 개발 기회를 획득

### ◆ 대표 사례 : 고속련 조선 용접공 인력 송출 사업

미얀마 노동이민주민주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 및 국가기술표준당국(National Skills Standards Authority)과의 협업으로 충분한 기량을 갖춘 조선 용접공을 선발하여 국제업체로 인력 송출을 진행

☞ 현재는 교육훈련과정을 국가기술표준당국에 위임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훈련 지원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B2C 전문인력 교류 확대) 국내 전문인력을 현지에 파견하거나 현지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선진 기술 및 지식을 전파

### ◆ 대표 사례 : 해우농수산물 영농 지도자 육성사업

핀우린 지역에 진출한 채소 계약재배 가공단지 노동력 조달을 위해 영농 지도자 교육과정을 제공  
미얀마 농업국 채소연구소 부지를 제공받았으며 현지인 대상 파종, 육묘, 재배 등 영농기술 전파를 수행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성장 모델로 의미를 가짐

- 미얀마 민간병원협회(Myanmar Private Hospitals' Association)는 우리나라와 의료 분야 교류 협력을 희망(현지 의료인력 한국 초청 교육 또는 한국 의료진 파견 교육)
  - ☞ 현지 병원이 의료장비 구매 결정 시 자국 의료진의 장비 사용 숙련도를 최우선 고려하므로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단,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정부 간 협력을 중단했으므로 G2G 형태의 협업 추진은 보류·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Chapter



# 진출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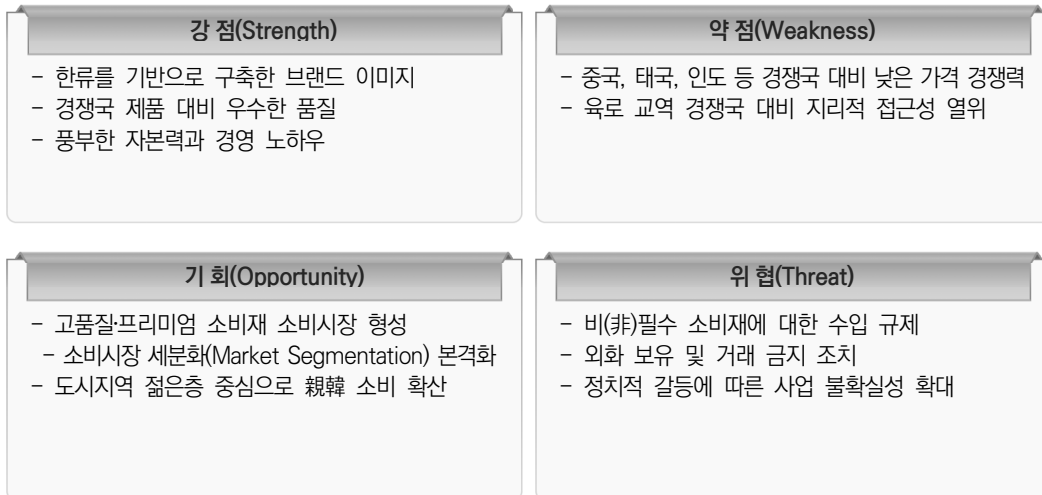
-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의 대표적 유망 시장  
 - 정치적 불안, 국제사회와의 갈등 및 대내외 규제는 중단기 불안 요소로 작용

## 1 PEST 분석

<b>P</b>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부의 정치 참여 권한이 보장된 '불완전 민주주의 체계'를 기본으로 함</li> <li>- '2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현재까지 임시 통치 체제 유지 중</li> <li>- 국제사회는 군정의 합법성을 불인정, 경제 제재를 부과 중이며, 아세안(ASEAN) 등 주변 권역과의 갈등도 지속 중</li> <li>- 현지 정부는 외환 통제, 무역 규제 등 경제 보호 조치로 대응 중</li> </ul>
<b>E</b>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률(GDP growth)은 2~3% 내외로 정체 예상</li> <li>- 국제 금융 제재 이후 환율이 56.2% 이상 폭등하며 외환 위기 발생</li> <li>-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는 최대 2배 이상의 '초(超)인플레이션' 진행 중</li> <li>- 무역적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등 대외경제지표도 부정적</li> </ul>
<b>S</b>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개방 이후 '고품질,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중상위 소비층 형성</li> <li>- 도시지역에서는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서구적 트렌드가 유행</li> <li>-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K-Beauty, K-Food 관련 수요도 지속 확대 중</li> </ul>
<b>T</b>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수급난 타개를 위해 태양광 발전 비중의 확대 추진</li> <li>- 전기차·배터리 및 관련 품목의 조기 도입도 장려 중</li> <li>- 제조업은 노동집약형 임가공 산업에 집중,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여전</li> </ul>

##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미얀마 시장 SWOT 분석〉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소비재 선호 계층 집중 공략</li> <li>- 도시지역 중상위 소비층 대상 한류 연계 마케팅</li> </ul>	현지 정부 정책 반영 수출 품목 다변화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한(親韓) 소비계층 대상 국가 브랜드 마케팅</li> <li>- 경영 노하우 활용 현지 진출 및 생산전략</li> </ul>	도시지역 중상위 소비층 선점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이미지, 기술력 우위 및 품질 차별화 우위 활용 중상위 소비시장 선점</li> </ul>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소비재 및 상대국 기간산업 연관 제품 활용 현지 시장 진출</li> </ul>	외환·무역 규제 대응 (리스크 회피)

### 3

##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이슈 및 산업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p>현지 정부의 산업·국민생활 보호정책</p>	<p>▲ 수출 주력 상품 확대 전략 (품목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소비재 중심 → +필수소비재 및 원자재 등으로 확장</li> <li>* 연관 품목 : 비료, 농기계, 태양광, 전기차 관련 부품</li> </ul>
<p>시장 분화와 중상위층 소비 성장</p>	<p>▲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 현상 활용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 소비재 선호 중상위 소비층 대상 시장점유율 확대</li> <li>* 연관 품목 : 화장품, 미용제품, 건축 인테리어, 가공식품</li> </ul>
<p>금융·무역 규제</p>	<p>▲ 현지 금융환경, 외환무역 규제 대응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대금 송금 제한 및 수입 라이선스 발급·선적 리스크 대비</li> </ul>
<p>시장 및 경영 위험 예방</p>	<p>진출 지역 경기 변동, 시장 축소 위험 및 경영 리스크에 능동 대응</p>

### 3-1. 현지 정부 정책을 반영한 수출 품목 다변화 전략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비(非)필수 소비재 수출 여건 악화, 상대국 핵심 산업 연관재 수출로 돌파구 마련 필요
- \* 농기계·화학비료 등 현지 정부의 농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품목으로 수력 상품 확대 추진
- 현지 경기 둔화 및 소비시장 축소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전략 수출 품목으로 활용 가능

#### ▣ 주요 이슈

- 미얀마 정부는 농업을 자국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농기계 보급, 화학비료 수입 및 사용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을 실행
  - (농기계 보급정책) 농업개발은행(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재원을 중심으로 농기계 구입 대출을 확대, 동시에 품목을 수입 라이선스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일부 민간은행, 소액대출기관, 민간농업회사, 보험사 등도 대출 지원 사업에 참여

#### 〈연도별 농기계 구매 대출 규모〉

(단위: Kyat)

회계연도 (미얀마 기준)	우기 (5~9월)	건기 (10~12월)	여름 (1~3월)	합계
2016년	916,448.00	156,963.48	17,993.40	1,091,404.88
2017년	1,401,599.58	212,661.70	16,362.60	1,630,623.88
2018년	1,416,704.30	272,222.95	18,781.70	1,707,708.95
2018년(미나회계연도)	1,301,614.55	-	-	1,301,614.55
2019년	1,364,708.10	366,263.90	16,500.90	1,747,472.90
2020년	1,375,986.50	362,199.45	17,955.15	2,235,345.70
2021년	264,001.60	351,505.15	7,633.25	628,706.05

주: 2021년에는 국가 비상사태의 영향으로 대출 규모가 일시 감소, 2022년 대출액은 집계 중  
 자료: 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 (비용 사용 확대) 화학비료를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품목 및 중점 투자 유치 분야로 지정, 해외 제품의 수입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를 장려

- 미얀마 정부는 외화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최근 라이선스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①순위) 농축산물, 비료, (②순위) 유류, 식용유, 식료품, 핵심 원자재, (③순위) 타이어, 교육 관련 제품 등을 '라이선스 우선 발급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농기계는 발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면제)**
- 반면 자동차와 휴대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

- (신재생) '23년부터는 전력난 완화 유류(油類) 수입 외화 주출 억제 목적으 태양광 패널(관세 면제) 및 전기차전기차 관련 부품의 수입을 장려 중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비(非)필수소비재 위주로 구성된 기존의 주력 수출 상품군에 현지 핵심 산업 연관 품목을 추가, 對미얀마 중점 수출 품목 다변화 추진
  - \* 자동차, 휴대폰, TV, 전자제품 등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한 품목의 수출 감소분 대체 필요
- (유망 품목) 각종 농기계류 및 화학비료`
  - (농기계) 토양 정리용 농기계(8432)(HS CODE 4자리), 수확기·탈곡기·농산물세장·선별기(8433), 기타 농기계·부란양육기(8436), 트레일러기타농기계부품(8716) 등은 수입 라이선스 심사 없이 수출 가능
  - (화학비료) 수입 규모 및 경지면적당 소비량이 늘어나는 등 수요 증가세

### 〈화학비료(HS CODE 3101~3105)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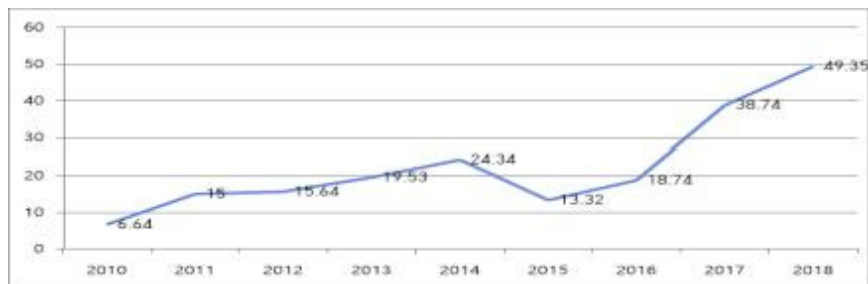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9.7	109.1	195.4	275.4	435.5	485.0	458.2	468.9	643.1

자료: Global Trade Atlas

### 〈경지면적당 화학비료 소비량〉

(단위: kg/ha)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 (태양광) 현지 정부가 태양광 발전 장려를 목표로 연관 품목 면세(관세 및 상업세) 혜택을 부여 증이며 관공서, 병원, 쇼핑몰 및 일반주택의 설비 가설도 급증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태양광 연관 품목〉

연번	품목 설명
1	PV Module/Solar Module/PV Panel/Solar Panel/Solar Panel 92 Watt CIGS (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
2	PV/Solar(Hybrid/Smart Array) Controller, Charge Controller For PV/Solar
3	PV/Solar Inverter(String/Hybrid/Battery/Bidirectional/Central)
4	PV/Solar Mounted Structure, PV/Solar Mounted Frames, PV/Solar Mounted Kits (Roof and Ground Mounted)
5	PV/Solar Mounted System(Floating)
6	PV/Solar Controller and Battery Box, PV/Solar Controller and Battery

자료: 우리나라는 품질경쟁력이 주효한 연관 기자재 진출에 주력하는 전략이 유리

- (전기차 및 부품) 현지 정부의 유류(油類) 의존도 축소 노력에 따라 전기차, 관련 기자재 및 충전 인프라의 도입이 빠르게 확대 중
  - 특히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상류층 소비자들은 화재 발생 위험이 낮고 제품 수명이 긴 한국산 충전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중국산 충전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편)
  - 중국산이 시장을 선점 중인 완성차 대신 배터리·충전기 등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유망 분야로 검토 가능

## 3-2. 도시지역 중상위 소비층 선점 전략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고급 소비재, 트렌드 상품 소비시장 對 기초생활필수품 소비시장으로 분화 뚜렷
- 중상위층의 고급 소비재, 트렌드 상품 소비시장 선점 對 향후 평균소득 증가 및 중산층 확대에 대비
- \* 우리 제품의 품질 경쟁력, 디자인 차별성 및 브랜드 이미지 적극 활용 필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장기간 이어진 군부의 경제 독점 이후 급격한 대외 개방이 진행되며 도시지역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며 소비시장의 분화가 급격히 진행
  - 상위 1% 계층이 국가 전체 부(富)의 34.4%를, 상위 10%가 67.5%를 점유
  - 또한 상위 1%가 16.7%, 상위 10%가 42.9%의 소득을 독점 중('20년 World Inequality Database)
- 트렌드 상품 및 고급 소비재(중상위층), 생활필수품(일반소비층) 등으로 시장 분화

구분	중상위계층 소비시장	일반 소비시장
제품 수요	• 화장품, 미용제품, 가전제품, 가공식품	• 식료품, 위생용품 등 기초생활소비재
선호 상품	• 한국, 일본, 유럽産 고가 브랜드	• 중국, 태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 저가상품
상품 선택 기준	•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 판매가격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우리 제품의 품질, 기술력, 디자인, 독창성 및 국가 브랜드(韓流) 이미지를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상위층 소비시장을 선점
  - K-Pop, 드라마와 연계한 브랜드 마케팅 및 대형 쇼핑몰 판촉전 홍보 필요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효과적
  - \* 한류를 접한 도시지역 젊은층의 '모방 소비 트렌드' 적극 활용 필요
- (유망 품목) 화장품·미용제품, 건축 인테리어(고급 바닥재), 가공식품류
  - (K-Beauty) 화장품·미용제품 및 헬스케어용품의 인기도 지속 증가 중이므로 K-Pop, 드라마와 연계한 브랜드 마케팅 및 판촉활동을 통한 시장 확대 필요

- (바닥재)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 중이나, 중산층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을 선호 → 고급주택 프로젝트 중심 공급 확대 필요
  - \* 한국 제품은 내구력·흡습성 측면에서 호평받음(저가품 내구 연한은 3년 미만으로 평가)
- (가공식품) 도시지역 젊은 중산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K-food 인기가 증가(한국 라면, 조미김, 과자, 음료 중심으로 '체험 소비' 수요도 확대)
- 특히 현지 소비자들의 소식(小食) 성향에 맞춰 정량을 축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소포장 출시 검토 필요 (실제 한류 모방 상품 다수가 소포장 전략으로 시장 점유 중)

### 3-3. 외환무역 규제 대응 전략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현지 정부의 경제 보호 정책 장기화로 무역대금 송금 통제, 수입 라이선스 심사 강화 지속 예상
- 수출대금 수취 애로 방지 및 수입 허가 지연에 따른 시장점유율 위축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 주요 이슈

- 현지 중앙은행, '수입 라이선스 발급 후 선적 완료 거래' 한정 외화 송금 허용(7.3부)
  - 원칙상 화물 선적 전 외화 송금 일체를 불허 (\* 불가피한 선금은 건별 심사 후 승인)
  - 선적 완료 건도 '선적 전 수입 라이선스 발급 선행' 조건 미충족 시 송금 금지
  - 현지 금융권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린 추가적 통제 조치로 평가
    - \* 현지 상무부는 수입 억제를 위해 자체 지정한 일부 필수재 외 모든 품목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 중

#### 〈조치 전후 중앙은행 통제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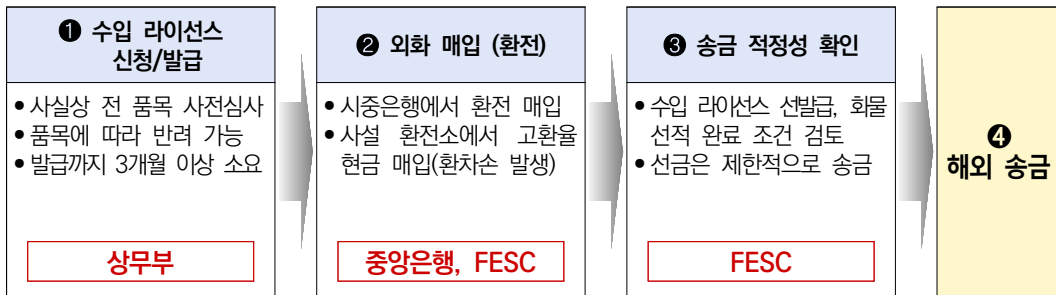
기존 통제 방식	제한 조치 이후 통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용 외화 매입만 제한</li> <li>☞ 바이어가 자체 확보*한 외화는 사전 송금 가능</li> <li>* 他 수출업체의 실적(Export Earning) 구매, 시중 환전소 현금 매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 매입 제한 + 송금 제한</li> <li>☞ 수입 라이선스 선발급 및 선적 완료 조건 미준수 시 해외 송금 불가</li> </ul>

- 또한 수입 라이선스 제도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심사 기준도 강화되며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위협 중
  - 기존 주력 품목인 생활소비재, 뷰티, 가전제품이 모두 후순위 발급 대상으로 분류
  - 반면 위안화 결제 조건의 육로 수입품 대상 라이선스 발급은 신속히 이뤄지고 있어 중국산 제품의 물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짐

#### □ 대응전략

- (송금 리스크 회피) 현지 규정상 바이어가 거쳐야 하는 송금 절차 숙지하고 외환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대금 미수취 애로를 사전 방지
  - 역외 계좌 거래 또는 위안화 결제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단계별 송금 통제 및 통제 주체〉



- (수입 허가 관련) 수입 라이선스 관련 벌과 규정 및 발급 지연 리스크 대비 필요
  - 상품 선적 전 바이어의 라이선스 획득 여부를 확인하여 화물 압류 리스크를 예방
  - 상대적으로 수월한 육로 수입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대안으로 태국 경유 수출방안을 선택 가능 (단, 물류비용 증가는 유의 필요)

〈참고 정보〉 수입 라이선스 미획득 화물(VPA)의 항만 대기에 관한 처분 기준〉

차량, 기계류		일반 화물	
대기 기간	과태료	대기 기간	과태료
1~20일	면제	1~30일	면제
21~30일	1/24 AV	31~40일	1/90 AV
31~40일	1/4 AV	41~50일	1/48 AV
41~50일	1/2 AV	51~60일	1/24 AV
51~60일	1 AV	61~70일	1/8 AV
61일 이상	압수	71~80일	1/4 AV
		81~90일	1 AV
		91일 이상	압수

자료: 기간은 '라이선스 미발급 상태로 항만에 대기한 기간'이며 AV는 제품의 평가액(Assessed Value)을 의미함

〈참고 : VPA 화물 및 현지 관행〉

- 정의 : 'VPA(Valid for Prior Arrival)' 수출국 출발 전 라이선스 신청을 완료했으나 입항 시점까지 발급 완료받지 못한 화물
- 화물 도착 시 I/L 발급이 유연하다는 점을 활용, 바이어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I/L을 신청 지연하자 '수출국 출발 전 I/L 신청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화물 분류 기준

## 첨부 1

##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의료기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요처인 병원(국민영)의 증가로 수요 확대 예상</li> <li>* 2017년 총 1,134개소였던 국립병원은 2021년 1,177개로 늘어났으며 민간병원은 2021년에만 259개소가 신설됨</li> <li>- 또한 현지 정부가 규정한 '필수재'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他 품목 대비 수월할 것으로 전망</li> </ul>
	시장동향	- 2022년 수입 규모(HS Code 9018)는 6,200만 달러로, 전년 수입액(5,300만 달러) 대비 16.9% 증가하는 등 시장 성장세가 뚜렷
	경쟁동향	- 중국(저가), 싱가포르, EU(이상 고가) 제품이 주로 유통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 전문업체 또는 현지 병원 관계자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유통망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병원 관계자의 구매결정력이 높은 편)</li> <li>- 중소형 클리닉, 미용 클리닉과 거래할 경우 의료진 교육, 유지 보수 지원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함</li> </ul>
품목명 2		
의약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및 건강보충제 섭취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함</li> <li>- 의료기기와 함께 '필수재'로 분류되어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함</li> </ul>
	시장동향	- 2022년 의약품(HS Code 3004.90) 수입 규모는 3억 3,334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경쟁동향	- 의약품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인도, 태국, 중국, 싱가포르 등임
	진출방안	- 전문 에이전트를 통한 유통망 발굴이 필요. 현지 수출 시에는 식약청(FDA) 승인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3~6개월가량임
품목명 3		
인스턴트 라면	선정사유	- 한류의 영향을 받은 젊은 중산층 소비자들의 체험 소비 욕구가 시장 성장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 중
	시장동향	- 인스턴트 라면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4,800만 달러 수준이며, 최근의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경쟁동향	- 한국을 비롯해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제품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 중. 이 중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라면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유사 상품으로 시장 점유를 시도 중인 사례도 다수 관찰됨
	진출방안	- 친한(親韓) 소비층의 체험 소비 욕구(Needs)와 중상위층 소비자들의 품질 중시 성향을 활용한 '고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4		
화장품	선정사유	- 경제 개방 이후 미(美)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관심 증가. 특히 한류로 형성된 'K-Beauty 열풍'이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시장 선점의 우호적 여건이 형성
	시장동향	- 화장품 수입 규모는 2018년 9,200만 달러, 2019년 1억 2,300만 달러, 2020년 1억 7,200만 달러, 2021년 6,600만 달러, 2022년 기준 1억 1,086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 중

	경쟁동향	- 소수의 현지 생산 제품 외 대부분의 브랜드가 수입을 통해 공급 중임. 시장을 주도 중인 브랜드는 한국, 태국, 일본, 중국 등의 제품이며 서구권 브랜드도 점차 인지도를 넓히고 있음. 이 중 태국 및 중국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저가 시장을 공략 중이며, 한국 제품은 K-Beauty 열풍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일본 제품이 점유 중이던 프리미엄 소비 시장을 빠르게 확보해나가고 있음
	진출방안	- 현지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OEM/ODM 생산 방식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자체 브랜드를 고품질로 생산하고자 하는 미용 클리닉을 집중 마케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5		
전기차 충전기 및 관련 부품	선정사유	- 현지 정부가 2050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14%를 전기차로 교체함을 목표로 해당 산업 육성을 추진 중. 이에 따라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 *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 연관 분야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현재 전후방 산업의 총 46개 품목과 3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상업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됨
	시장동향	- 네피도(Nay Pyi Taw) 전기버스/전기택시 도입 추진, 양곤시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정책들이 잇따라 도입되어 시행 중임
	경쟁동향	-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전기차 및 충전 기자재 분야에서 선전 중. 단, 도입 이후 품질 및 신뢰성 관련 소비자들의 저평가가 지속 증가 중임
	진출방안	- 기술, 품질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고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 추진 필요
품목명 6		
전선	선정사유	- 2030년까지 매년 11% 이상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기자재 소비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 특히 현지 정부의 인프라 개선사업이 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 수입 규모는 2018년 7,200만 달러, 2018년 1억 1,800만 달러, 2019년 1억 1,600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 비상사태 선포 당해인 2021년 7,300만 달러로 일시 하락했으나 2022년에는 9,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회복함)
	경쟁동향	- 양곤(Yangon)-만달레이(Mandalay)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개 전문기업이 전선을 유통 중이며 제품 대부분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 중
	진출방안	-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력 기자재 개선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력이 필요. 또한 현지 생산을 통한 공급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 (현재 국내 기업 2개 사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중)
품목명 7		
비료	선정사유	- 현지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규정한 농업의 핵심 원료로, 실제 수입 라이선스 최우선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등 현지 진출 여건이 매우 우호적임
	시장동향	- 농업 현대화 정책 추진 이후 경지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률이 지속 확대 중이며, 경제난과 외환 위기에다 현지 정부의 지원 하에 수입도 꾸준히 증가 중
	경쟁동향	- 중국이 저가 제품을 앞세워 약 45%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 제품도 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매를 확대 중
	진출방안	- 저가상품 대비 우월한 생산성 증대 효과, 우기가 긴 현지 환경에 적합한 품질(토양 잔류력 우수) 등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회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8		
바닥재	선정사유	- 서구식 생활 양식의 유입으로 인테리어 트렌드가 변화하며 바닥재 수요가 형성, 이후 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임

	시장동향	- PVC 바닥재 수입 규모는 2021년에 1,817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제 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경쟁동향	- 경제 위기 이후 저가 상품들이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확대 중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임. 한국 제품은 소규모로 형성된 고급 인테리어 시장을 제한적으로 점유 중이며, Gerflor(프랑스), Tarkett(유럽), Armstrong(미국) 등 선진 브랜드와 경쟁 구도를 형성
	진출방안	- 품질경쟁력 활용이 가능한 고급주택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유통 확대 추진 필요. 바닥재 인테리어에 한국 드라마가 미친 영향이 큰 편이므로 한류 소비층 겨냥 전략도 주효할 것으로 예상
품목명 9		
음료수	선정사유	- 도시지역에 집중된 젊은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프트 드링크(Soft Drink) 음료 수요가 증가
	시장동향	- 2022년의 음료 소비량은 다시 4억 2,060만 리터를 기록하며 무려 13.5%의 반등을 기록. 2021년 소비 위축에서 가장 빨리 회복한 품목 중 하나로 꼽힘
	경쟁동향	- 물류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태국 브랜드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된 맛을 바탕으로 시장을 공략 중
	진출방안	- 현지 음료 소비 트렌드(에너지 드링크 중심, 맛색소 중시 등)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
품목명 10		
농기계	선정사유	- 현지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장려 중인 농업의 핵심 기자재로, 농촌 현대화 계획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수요 확대가 기대 * (수요 확대 요인) 2006년까지 보급된 농기계는 파종기 11만 4,000대, 트랙터 1만 1,000대, 로터리식 소형 농기계 57만1,000대 등으로 경지면적 대비 부족한 상황
	시장동향	- 현지 정부가 농가 대출 등을 통해 도입 확대를 추진하며 꾸준히 수요가 증가 중
	경쟁동향	- KUBOTA(일본), DKK(미국), TZWD(일본), 대동(한국) 등 선진 브랜드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
	진출방안	- 농기계 전문 유통기업을 통한 진출이 유망하나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단독 판매망을 구축할 수도 있음. 사용법 교육 및 유지보수 등 A/S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참고 필요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소액 금융	선정사유	-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경제난 심화 이후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하며 소액 금융 수요가 확대
	시장동향	- 한국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15개의 소액 금융이 진출되어 있음
	경쟁동향	- 일본·한국 등 글로벌 자본의 현지 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현재 총 대출자산 2조 3,160억 짜트 규모의 176개 업체가 현지에서 영업 중
	진출방안	- 현지 투자 진출 법령을 상세히 확인, 합작 및 단독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만큼 ESG 요소의 관리도 중요
품목명 2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중상위층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찾고 있어 향후 수요 확대가 기대됨
	시장동향	-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부 지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5% 가량 증가. 특히 2017년 해당 분야 정부 지출은 7억 4,100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6%를 차지하는 등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 중
	경쟁동향	- 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및 일본 등이 연락사무소 또는 합작 병원 설립을 통해 현지에 진출하며 ArYu International 병원, Grand Hanthar 병원 등 국제 기준에 근접한 시설이 설립됨
	진출방안	- 차별화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중상위층 수요를 공략, 특히 현지 합작 진출 형태가 주효함
품목명 3		
배달 서비스	선정사유	- 인터넷 사용의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의 발달로 배달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함
	시장동향	- 도시지역 젊은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객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
	경쟁동향	- 해외 자본의 투자로 'Food Panda'와 'Grab Food' 등의 서비스가 잇따라 런칭, 경쟁 구도 형성 중. 서비스 지역은 현재까지 양곤·만달레이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진출방안	- 현지 소비자 니즈 파악을 위한 합작 투자가 유망. 신용카드 결제, 환불 시스템 정비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도 주효
품목명 4		
온라인 플랫폼	선정사유	- 인터넷 사용의 확대,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현지 E-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거듭 중
	시장동향	- 2021년 E-커머스 거래 규모는 240억 9,900만 짜트(Kyat)로 2010년(18억 7,800만 짜트) 대비 무려 1,182%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 중
	경쟁동향	- 중국 알리바바의 투자를 받은 'Shop.com'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 중이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강자인 CityMart도 Citymall을 런칭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 중

	진출방안	- 플랫폼 사업 진출 외 플랫폼 활용 소비재 진출전략도 주효할 것으로 예상. 특히 뷰티상품가공식품 등 트렌드에 민감하고 다품종 전략이 중시되는 품목은 E-커머스를 통한 유통의 장점이 클 것으로 판단
품목명 5		
콘텐츠(웹툰)	선정사유	- 중산층의 증가, 인터넷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화로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며 웹툰 콘텐츠 수요 형성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웹툰의 인기가 급상승 중)
	시장동향	- 현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 중인 페이스북을 활용해 한국 웹툰을 접하고 있으며, 번역 수요도 높은 편임
	경쟁동향	- 현재 정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Wattpad, Wunzin 등 번역 플랫폼이 공급을 전담
	진출방안	- 현지 수요를 반영, 번역 공급이 가능한 정규 플랫폼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정식 런칭할 필요가 있음

###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1	한류 활용 뷰티 소비재 수출 확대	미얀마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지원사업	연중/양곤
2		뷰티 소비재 미얀마 동반진출사업	연중/양곤
3		지자체 테스트 마케팅 지원사업	연중/양곤
4	진출기업 경영 애로 파악 및 對정부 건의	1분기 진출기업 간담회	1분기/양곤
5		2분기 진출기업 간담회	2분기/양곤
6		3분기 진출기업 간담회	3분기/양곤
7		4분기 진출기업 간담회	4분기/양곤
8		주간 투자 뉴스레터 발간 (600여 개사 대상)	연중/양곤
9	미얀마 취업 지원	해외취업 멘토링 간담회	3분기/양곤
10	수출중단기업 및 거래 중단 바이어 상시 지원	1:1 화상상담회	연중/양곤

###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Complast Myanmar 2024	2024.2.23~25	
Myanmar Plas Print Pack 2024	2024.12.13~16	
Myanmar International Textile & Garment Industry Exhibition 2024	2024.12.13~16	
Myanmar Int'l Agriculture & Food Industrial Exhibition	2024.12(잠정)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오기호	과장	양곤 무역관	+95-1-925-3346	ohkiho@kotra.or.kr
2	Kay Thwe Oo	사원	양곤 무역관	+95-1-925-3346	kaythwe@kotra.or.kr

2024  
미얀마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 979-11-402-0857-9 (95320)